

'노인복지환경' 내년부터 확 바뀐다



보건복지부 최영호 팀장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그게 뭔가요?”

2008년부터 이런 의문은 통하지 않는다. 특히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거나 하려는 단체·개인이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노인복지법이 2008년 2월 개정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2008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즉 2008년에는 노인복지환경이 전면 개편된다.

이런 상황에 발맞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정념이)은 10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 최영호 팀장을 발표자로 선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정책방향 설명회’를 열었다.

노인성질병으로 고통 받는 국민

조계종, 노인복지시설 정책방향 설명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년 7월 본격 시행 요양보호사에 국가자격증 발급 제도 신설

을 공적부조 속에서 보호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66세 이상 노인 노인성질병을 가진 64세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보험급액은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3등급(등급이 높을수록 중증) 판정을 받은 후, 크게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나눠 상황에 맞게 지급받을 수 있다.

현재 불교계에는 약 30여개의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운영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교구분사별로 노인요양시설 건립에 힘쓰고 있고 복지원력을 가진 스님들이 노인복지시설 또는 요양시설 건립을 계획 중이어서 더 많은 시설이 생겨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노인복지법 개정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은 △시설유형 통합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 신설 △시설 인력기준 변화다.

시설유형은 현재 노인전문·실비·유료노인요양시설로 나뉘었는데 반해 개정법에서는 노인요양시설로 모두 통합되어 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판정,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 후에는 소득의 구분 없이 본인의 상태에 따라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요양보호사 제도는 일정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앞으로 노인요양시설 뿐만 아니라 모든 노인복지시설에서 요양보호사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교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시설관에서 양성된 노인복지사·케어복지사 등은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불교계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복지사 양성기관을 보건복지부 기준에 맞는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으로 전환해야 함은 물론이고 현재 양성된 시설복지사들이 법령 시행 후에도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올바른 안내가 필요한 상황이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내년 ‘노인보조사 양성센터’ 개소를 통해 재단 차원에서 요양보호사 제도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설명회에는 시설장님들이 대거 참석, 바뀐 노인복지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시설 인력기준의 경우, 현행법은 노인 5명당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인을 두도록 되어있으나 앞으로는 2.5인당 1인을 채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설들은 지자체와 시설 인력기준을 맞출 수 있는 의료보험 및 보조금 지원 등을 충분히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 남해에서 화방동산노인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효천 스님은 “어려운 어르신들을 잘 보살피자는 취지의 제도 자체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면서도 “등급에 따라 의료수가를 적용하면 건강이 좋아질 수 있는 어르신들의 등급이 낮아져 수가가 낮게 책정될 것을 염려해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시설도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스님은 “중요에서 정책이 나올 때마다 지방 시설들은 따라가기 급급한 실정”이라며 “실제 운영자들의 고민이 정책에 반영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 최영호 팀장은 “보험료 수급을 놓고 시설에서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도 미비점 개선을 위해 여러 시설장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현장의 소리를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노인복지시설 정책에 대한 자료를 배포 중이며 11월 중 ‘저출산고령사회에 따른 사회복지법 변화 설명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02-723-5101

글·사진=김강진 기자

“종교인부터 장기기증 인식 바뀌야”

3개 종교단체 합동 세미나

“장기기증은 종교인들부터 나서야 합니다.”

국민적인 인식이 전환되지 않으면 장기이식 등록도 활성화 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3개 종교가 모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다. 불교계 장기기증등록단체 생명나눔실천본부가 10월 19일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종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서경대학교 박광서 교수가 좌장으로 나선 이 세미나에서는

동아대 이상목 교수,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설립자 박진탁 목사, 경희대 김명재 교수가 발표하고 가톨릭 서울대교구 박정우 신부, 사회복지법인 인택원 이사장 성운 스님, 성터교회 방인성 목사가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 참여한 토론자들은 “앞으로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위한 종교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종교인들이 먼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생명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강진 기자



낙산사 상락원 문 활짝

사회복지법인 낙산실비전문요양원 상락원(사진)이 10월 19일 개소했다. 강원도 양양군 현풍리에 위치한 상락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실비시설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의료복지시설이다.

상락원은 전체 570평에 지상 4층 건물로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야외 정원 등을 갖추고 있다. (033)672-0053 김강진 기자

추위 녹이는 ‘온정’의 불지퍼요

장애우·독거노인 위한 불교계 후원행사 풍성

날이 추워지면서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도 늘었다.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고 있는 불교계 복지시설들도 이웃과 함께 하는 행사들을 다양하게 준비 중이다.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장애우동시시설(원장 동욱, 02-921-6410)에서는 중증장애우동 재할기금마련을 위한 ‘사랑 나눔 일일마켓’을 10월 28일 연다.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승가원장애우동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88명의 중증장애우동들의 재할기금을 마련하여 의구,

보조기구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 02-622-6242)도 10월 31일 어린이대공원역 인근에서 ‘사랑의 일일 호프’를 연다. 이 행사 수익금은 전액 무의탁노인 돌기에 쓰일 예정이다.

한편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공상길, 02-831-2755)에서도 10월 23-24일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바자회를 개최한다. 이번 바자회는 저소득층의 급식비 지원 기금 모금이 목적이다. 물품후원과 후원금 모금 모두 가능하다. 김강진 기자



①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이용권 사무국장

불교에서 자비와 보시는 중요한 덕목이다. 그런 불교 자비정신의 꽃은 역시 ‘복지’다. 불교계 복지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지도, 널리 이름을 전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저 ‘사람’이 좋아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할 소망할 뿐인 그들. 그들의 진짜 사람 사는 이야기를 들어본다.

“마음 어루만지는 복지 실현을”

문학에 푹 빠져 살던 소년이 있었다. 소년은 불법(佛法)의 인연으로 불교학도가 됐다. 그리고 이제는 종단을 대표하는 사무국장 자리에서 불교복지를 총괄하고 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이용권 사무국장(48)이다.



시설 수탁 노하우를 전수받으려 이웃종교 시설 방문을 수차례 한 후에야 서류를 낼 수 있었다. 시설 위탁 담당 공무원은 ‘불교계가 과연’이라는 의심 어린 눈길

을 보내기도 했다.

“정말 절실히 기도했어요. 일단 시설이 있어야 불교복지를 알리고 자원봉사 인력도 키워내죠. 무조건 시작해야 했어요.”

그렇게 밀어붙인 결과 ‘시작’은 성공했고 ‘구로복지재단’은 지금까지 불교계가 수탁하고 있다. 흔히 사회복지사는 예리한 머리와, 뜨거운 가슴, 부지런한 발, 이 3박자가 맞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 국장은 “불교복지를 하는 사람은 가슴을 불심(佛心)으로 채워야 한다”는 소신이다.

앞만 보고 달려왔던 그도 2년 전에는 꽤 힘들었다. 무리한 업무로 심신이 지쳐 건강이 악화됐다. 그랬던 이 국장에게 요즘 다시 활기

가 넘는다. 한마음과화원의 공생 실천과정을 통해 마음을 내려놓고, 진짜 마음 내는 것을 연습하다 보니, 그야말로 편안하다고 한다.

“당시 불교복지의 위상은 통계적으로 보면 이웃종교에 비해 취약했어. ‘불(佛)’자를 내걸지 못하는 환경이 안타까웠죠. 하지만 사찰에서 소외된 아동·노인 등을 돌보는 등의 활동은 이어져 왔어요. 무작정 비판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다 종단 안팎으로 불교복지법인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1995년 창설됐다.

첫 시설 수탁은 극적이었다. 1995년 겨울 구로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 위탁 공고가 나왔을 때였다. 그야말로 ‘처음’이다 보니

“복지 자체가 수행이요. 고우 스님께서도 복지를 다양한 수행 방법 중 하나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만큼 좋은 도량도 없어요.”

인간을 사랑하지 않고는 버릴 수 없는 ‘복지’의 길 위에서, 불교 복지의 신념을 곳곳이 지켜가는 이 국장. 그가 꿈꾸는 불교복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다.

“현대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정신복지’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법시(法施)를 설하셨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정신을 구하는 복지, 이제는 그것을 하려 합니다.”

글·사진=김강진 기자

세계불교법왕청 몽골불교대학 부설

세계불교명상센터 제2기 학생모집안내

도심에서 만나는 히말라야 명상

평화를 가져오는 심안법

대안적인 삶 (Alternative Living)

여러분의 삶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세요

- 활안큰스님 벽암록 강의 월 2회
- 장 소 : 화정 광명사 법당
- 지도자 : 명상센터 원장 보현법사
- 문 의 : 031)978-9782(광명사), 011-447-1122(원장), 02)969-2410(금강선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79-2 백양빌딩 7층

1. 진실한 사랑이 있는 화목한 가정생활 2. 동료와 함께 발전하는 지혜로운 직장생활
3. 밝고 명랑한 학교생활 4. 시험합격을 위한 밝은 지혜
5. 건강과 행운이 깃든 신나는 자아실현

명상을 하면 내가 바뀌고 내가 바뀌면 새로운 세상을 만납니다
하루 10분씩 3번 아침·점심·저녁을 평화롭게 보내는 행복한 명상

활안큰스님 보현법사

(사)한국불교 금강선원 광명사 세계불교명상센터